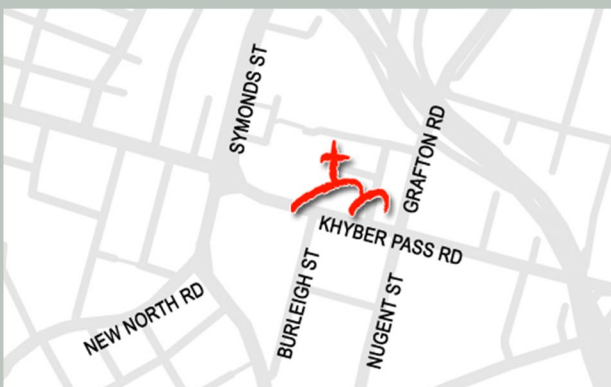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독으로 말씀을 읽는 다섯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출애굽기 35장 - 레위기 15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50)
-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 2019년 8월 24일 (토)-25일 오전 10-오후 4시 (주일)
장소: 교회
주제: 하나님은 나의 중심(로마서 12:2)
-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5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도와 격려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기 바랍니다.
- 모든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로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교회 사역 일정]
25일 (주일) 권사 기도회
28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4남녀)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8/11
21권 32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06:47-48	인도자
■ 찬송	27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50장	다같이
대표기도	-----	정관영 장로
성경봉독	히브리서 11:13-16	인도자
찬양대찬양	이세상의 모든 죄를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	이태한 목사
찬송	492장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문일숙 집사	금주기도	김다슬 자매
성경봉독	마가복음 3:27-30	다음주일	김수희 자매
설교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359장		
주기도	다같이		

[8월 기도 순서]
8월 18일 (주일) / 이광희A 장로
8월 21일 (수) / 박후임 권사
8월 25일 (주일) / 경덕현 집사
8월 18일 (수) / 이병대 집사

[8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병대, 이진아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박영선 A

MISSION

이번 주는 남아공 케이프 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로 동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케이프타운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7월달에는 한국 서울에서 청운 교회 청 장년들이 3번째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분주하기는 했으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다 일어납니다. 최근 정부에서 케이프타운 관광지를 제외한 모든 곳에 군 병력을 투입시켜 갱들과 도둑, 마약범, 음주운전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의원 싸야가 와서 감사 및 격려해 주며 안전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온 동네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심방하는 노방 전도와 어린이 캠프, 그리고 창작활동 및 게임 등의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청운 청년들 정말 대단하고 자랑합니다.

청운 교회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은혜롭고 풍성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는 비도 오고 추워야 하는데 얼마나 좋은 날씨가 계속되던 지 너무나 감사했고 무엇보다 이 험한 지역에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게 되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힘이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봉관 장로님(서희 건설 대표)께서 동네 큰 잔치를 하라며 상당한 성금을 보내 주셔서 더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풍성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 신문에도 크게 소개되었고 동네에 모델 교회의 본을 다 시 한번 보여 주어 지역의 교회들을 일깨웠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쳐서 앞으로 더 큰 부흥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7월 3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1. 도둑, 마약범, 음주운전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도록.
2.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침에 따라며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PRAYER

1.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고 항상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교회가 되도록.
2. 말씀 묵상의 의미를 잘 적용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SHARING

정독으로 읽은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편애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야곱! 내 눈에는 해도 해도 너무나 자식 편애의 아버지로 보였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그를 형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자식인데 야곱은 말끝마다 요셉만 아들인 것처럼 내 아들, 내 아들.... 그 결과로 야곱은 늙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모든 아들의 거짓과 속임 속에 살아야 했다. 형제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형편없는 아버지로 보인다. 게다가 아들 시므온은 불모로 잡혀 있음에도 베냐민을 내놓을 생각을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 잡혀있던 시므온의 마음은 생각이 나 한 걸까? 그도 아들인데 딸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창 46~48)을 읽으며 야곱의 깊은 마음속의 상처와 고통들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 47:9)"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 속에 쓸쓸하고도 외로웠던 그의 인생 여정이 보인다. 130살이나 된 늙은 노인이 바로 앞에 엎드려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내 마음이 몽클해진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 겉으로 보기엔 유복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의 가정에 수없이 일어났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 할 수치가 가득했다.

야곱은 죽기 직전 요셉을 불러 앓히고 말한다. "내게 대하여는 밧단에서 올 때에 에브랏 길에서 라헬을 장사한 것이라 (창48:7)." 자신에 대하여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단지 라헬의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뿐이라는 말이 아닐까? 마음에 온통 라헬로 꽂 차서 살아온 인생, 야곱은 라반의 드라빔 사건으로 본이 아니게 라헬을 저주했고(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라고) 아마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요셉이 태어났으니 (창30:25) 그 어린 요셉은 엄마를 잃었고 베냐민은 엄마의 젖도 한번 물려보지 못한 불쌍한 아이가 되었으니 야곱의 한평생에 이 두 아들은 가슴속의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편애는 당연했으리라 이해가 되면서 어찌면 나라면 야곱보다 더한 편애의 어미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보이는 것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다는 생각 앞에 더 조심히, 더 깊이 다시 생각해보고 환경 속에서 빚어진 아픔들을 이해하려 들면 이해 못 할 자가 없음을 깨닫는다. 오히려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짜악 안아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친다.

한상순 집사

금주의 암송말씀

히브리서11: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